



임준혁

‘나’를 비우니 ‘야구’ 보이네



김병현

13년차 임, 150km 강속구 내려놓고 다시 시작
컨트롤을 새 무기로...kt전서 7년만에 선발승



ML서 ‘화려한 시절’ 김 “과거 잊고 내 공 찾고 싶어”
스프링 캠프 독하게 준비...선발·불펜 전천후 키맨 합류

쌓이는 경험만큼 시간이 아속한 베테랑들이다. 세월의 흐름을 비켜갈 수 없는 베테랑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은 ‘비움’이었다. 부상에서 복귀한 KIA 마운드의 새로운 전력 임준혁과 김병현이 과거를 버리면서 경쟁력을 재웠다.
벌써 임준혁도 13년차다. 포수로 입단을 했던 그는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투수로 변신했다. 150km는 찍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던 시절, KIA 강속구 군단의 멤버였던 임준혁이지만 그의 몸날은 쉬이 찾아오지 않았다. 상무로 떠났던 그는 그곳에서 이스 자리를 차지하며 광주 아시아게임 국가대표 후보로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임준혁의 이름은 특

별하지 않았다.
13번째 시즌. 그가 마침내 특별한 선수가 됐다. 임준혁을 상징하던 150km의 강속구는 없지만 그 자리에 컨트롤과 간절함이 남았다.
타고나야만 가질 수 있다는 강속구를 버리는 게 쉽지는 않았다. 믿고 따르는 형 서재응을 통해 그는 어렵게 강속구를 내려놓으며 지금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임준혁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서)재응이 형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했다. 이대진 코치님도 (현)승혁이의 강속구를 이길 수는 없는 거라고 하셨다. 힘이 넘치는 후배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스피드를 줄인 그는 컨트롤을 새 무기로 삼았다. 벤치의 믿음 속에 얻은 간절함도 임준혁의 또 다른 변화다.
임준혁은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다. 이제야 야구를 하는 기분이다. 믿음에 보답해드리고 싶다. 적극적으로 승부를 하려고 한다. 불넷으로 내보내는 것은 승부도 해보지 않고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 꾸준한 모습으로 팀 승리에 역할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가을 야구를 하고 싶다. 그게 나와 우리 선수들의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병현은 야구 경력만으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하나다. 아쉬울 것 없는 명예와 부를 이미 갖췄지만 그는 올해도 치열한 그라운드를 선택했다.
고향팀으로 돌아오던 날 그는 “슬픈 이야기지만 예전의 나는 잊어주시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던져보고 싶다. 꾸준한 내 것을 찾고 나서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과거를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한 지난 시즌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선발로 마운드를 지키며 자신의 야구를 다시 시작했다.
올 시즌도 이를 악물고 준비했다. 맹장수술로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후배들이 허를 내두를 정도로 독하게 연습을 하며 새로운 시즌을 기다렸

다. 그리고 17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된 그가 또 다른 시즌을 열었다.
경기가 끝난 뒤 “이곳에 와서 다시 야구를 하니 재미있다”고 웃던 그는 욕심을 버렸다고 했다.
김병현은 “첫 등판이라서 제구에 가장 신경 썼다. 낮게 낮게 던지려고 했는데 나쁘지는 않았다. 시즌 준비하면서 선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다. 후배들 분위기도 좋고 즐겁게 야구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비위서 채운 임준혁과 김병현의 2015시즌. 두 베테랑의 어깨에 KIA의 마운드가 달라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교포 이민지 “나도 슈퍼 루키”

킹스밀서 LPGA 첫 우승

호주교포 이민지(19)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첫 승을 올리며 또 한명의 슈퍼 루키 탄생을 신고했다.
이민지는 지난 18일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 리조트 리버코스(파71·6379야드)에서 열린 킹스밀 챔피언십 4라운드를 6언더파 65타로 마무리했다.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적어낸 이민지는 LPGA 멤버가 된 뒤 11개 대회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 상금은 19만5000달러(약 2억1000만원).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이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2위, 재미동포 엘리슨 리(19)가 12언더파 272타로 3위에 올랐다. 이민지는 아마추어 시절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와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2014년 2월에는 아마골프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프로로 전향한 이민지는 퀘리파인스클럽을 수석으로 합격, LPGA 투여에 입성했다.

이번 대회는 약천후로 대회 예정 종료일을 현지 시간으로 하루 넘겨 끝났다.
이민지는 15번홀까지 이글 1개,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묶어 무려 7타를 줄이며 우승을 예감했다. 특히 15번홀(파5)에서는 두 번째 샷을 3m에 붙인 뒤 이글을 잡아 엘리슨 리와의 격차를 4타차로 벌렸다. 이민지는 하루를 넘겨 이어진 경기에서 16번홀(파4) 보기, 17번홀(파3) 파, 18번홀(파4) 파를 적어냈다.
유소연이 15번홀부터 17번홀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 맹주격에 나섰지만 동태를 만들기에 2타가 모자랐다. 이민지와 마찬가지로 신인인 엘리슨 리도 첫 우승을 노렸지만 이민지의 맹렬한 기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한국선수과 교포 선수들은 시즌 전반기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10승을 합작했다. 한국과 교포 선수가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것은 지난해 16승이다. 김효주(20·롯데)는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와 2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5언더파 279타를 쳐 공동 16위를 나뉘기했다.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최다 우승기록 이룰까

내일 SK텔레콤 오픈 개막...디펜딩 챔피언 김승혁·김경태와 샷대결

미국과 일본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정상급 골퍼들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맞붙는다.
21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7241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경주(45·SK텔레콤)를 비롯해 김승혁(29), 김경태(29·신한금융그룹), 김형성(35·현대자동차) 등 일본에서 뛰는 선수들이 출전한다.
올해 처음 국내대회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SK텔레콤 오픈에서만 3승을 거뒀던 이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PGA 투어에서는 2011년 이후 우승 소식이 없지만 지난해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공동 28위에 오르는 등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KPGA 투어 상금왕이자 디펜딩 챔피언 김승혁의 2년 연속 우승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회에서 2연패를 한 선수는 지금까지 박남신(56·1999년, 2000년), 위정수(43·2001년, 2002년) 2명 뿐이다.



최경주

이 밖에 지난해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프로 데뷔 10년 만에 우승한 문경준(33·휴센), 시즌 개막전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 우승자 허인회(29·상무)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아시아 투어와 공동 개최하는 이 대회에는 지난해 매경오픈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제이슨 노리스(호주), 라이언 폭스, 캐리스 패디슨(이상 뉴질랜드)이 다시 출전, 우승에 재도전한다.
총상금 10억원, 우승 상금 2억원이 걸린 이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올해부터 4년간 KPGA 투어 출전권을 준다. /연합뉴스